

-(으)ㄴ/는 바이다

~하는 바이다 — 공식적인 선언

평범한 서술을 공식적인 선언으로 바꿉니다. -(으)ㄴ/는 바의 바와 같은 말이지만, 여기서는 관형절을 이끄는 대신 문장을 끝맺습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동사	-는 바이다	감사드리다 → 감사드리는 바입니다
완료된 행동	-(으)ㄴ 바이다	말씀드린 바입니다
ㄹ로 끝남	ㄹ 탈락	만들다 → 만드는 바이다
동사	공적인 말하기 행위	밝히다, 요청하다, 촉구하다
띄어쓰기	바는 의존 명사	감사드리는 바입니다
관형절로 쓸 때	-(으)ㄴ/는 바	아는 바가 없다

■ 언제 쓰나요

형태는 관형사형 체계를 따릅니다. 동사는 -는 바이다, 완료된 행동은 -(으)ㄴ 바이다를 씁니다. ㄹ로 끝나는 어간은 ㄹ이 탈락하며, 바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.

문장을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공식적인 행위로 만듭니다. 감사, 선언, 요청, 약속 등이 해당합니다: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.

대부분 몇몇 동사와 함께 씁니다: 감사드리다, 밝히다, 요청하다, 촉구하다, 약속하다, 사과드리다 — 모두 다음에 속하는 동사입니다: 공적인 말하기.

문체는 성명서나 연설의 것입니다. 평범한 묘사에 쓰면 거창하게 들립니다.

■ 예문

- 1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.
- 2 회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.
- 3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.
- 4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입니다.
- 5 제품의 품질에 끝까지 책임질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.
- 6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.

■ 비교

-(으)ㄴ/는 바
같은 명사지만 위치가 다릅니다. 바만 쓰면 ‘~한 것’이라는 뜻으로 관형절을 이끌고, 바이다는 선언으로 문장을 끝맺습니다.
아는 바가 없습니다. (아는 것이 없음) / 감사드리는 바입니다. (감사의 뜻을 포함)

-(으)ㄹ 따름이다
둘 다 의례적인 문장 끝맺음입니다. 따름이다는 주장을 겸손하게 좁히고, 바이다는 공식적인 행위로 격상시킵니다.
감사할 따름입니다. (그저 감사할 뿐임) / 감사드리는 바입니다. (감사의 뜻을 포함)

-아/어 마지않다
둘 다 격식 있는 연설에 씁니다. 마지않다는 감정을 강조하고, 바이다는 행위를 공식화합니다.
축하해 마지않습니다. (진심으로 축하함) / 축하드리는 바입니다. (축하의 뜻을 포함)

■ 주의

- ✗ 부품을 직접 만드는 바입니다.
- 부품을 직접 만드는 바입니다.
ㄹ로 끝나는 어간은 관형사형 체계 전반에서와 마찬가지로 -는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
- ✗ 오늘 날씨가 좋은 바입니다.
-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.
바이다는 공식적인 발화 행위를 나타냅니다. 평범한 묘사에 쓰면 거창하게 들립니다.
- ✗ 여러분께 감사드리는바입니다.
-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.
바는 의존 명사이므로 관형사형 뒤에 띄어 씁니다.